

## 국립 완주 문화재연구소 23일 출범

문화재청·행안부, 직제 시행 규칙 개정  
삼례읍 위치 임시사무소 정비 10월 개소  
가야문화권 연구 지역편차 해소 기대



23%가 전북에 분포해 있다. 특히 만경강 유역 초기 철기 문화 세력은 동부 가야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영남 위주로 가야 유적 조사가 이뤄지면서 전북 유적 조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전남 연구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정부혁신 역점 과제에 따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를 신설, 전북 유적 조사를 전담하고 미흡했던 가야 문화권 연구의 지역적 편차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을 계기로 한반도 철기문화권 유입경로인 만경강 유역 초기철기 유적을 조사한다. 고조선, 마한, 백제로 이어지는 고대사 핵심 연결고리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후삼국 시대를 처음 연 후백제 도성 연구, 불교유적 등 지역 고유 문화유산 학술조사를 통한 역사문화 콘텐츠 원천 자원 제공과 지역 유산 관광자원화도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 올 북미 세계잼버리 스타디움 활동 개시

운영 시스템 등 습득 위해 도 공무원 14명 출국  
송하진 도지사, 31일 합류 폐영식에 참석키로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제24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서밋 백텔에 오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전북도 북미세계잼버리 스타디움(이하 '도 스타디움')을 파견한다. 이번 도 스타디움 파견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4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잼버리의 현장에서 기획, 준비, 운영 등의 노하우 습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준비됐다. 도 스타디움은 행정, 시설, 안전, 의료, 통신 등 각 분야별 담당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16일간 한 국스카우트연맹, 부안군과 함께 총 60명이 활동하는 대한민국 대표단에 소속되어 잼버리 플래닝(JPT)으로 활약하게 된다. 또, 이들은 미국 잼버리 현장에서 차기개최국 자격으로 홍보 활동을 하면서 행사 전반의 운영매뉴얼과 실제 시행단계를 조사 분석하며, 현장 경험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구상이다. 특히, 도 스타디움 전원은 미국 파견에 대비하여 스카우트 지도자 중 급훈련 과정을 이수했으며, 잼버리

특별한 영어회화 과정을 개설하는 등 현지 적응하는데 준비를 마쳤다. 이번 북미세계잼버리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스카우트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자(Unlock a New World)'라는 주제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1박 12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며, 전북도 스타디움은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22일 전에 미리 현장에 도착하여 현지 외국인 스태프들과 준비과정을 포함한 현지조사에 착수하고 홍보관 운영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전북도 북미잼버리 스타디움 출국보고 자리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이번 스타디움 파견을 통해서 4년 후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개최의 멋진 밑그림이 그려질 기대한다"면서 "북미세계잼버리 현장에서 우리 도에 필요한 노하우 습득과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오는 7월 31일 북미세계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리셉션에 참석하고, 이튿날 폐영식을 통해 여성가족부 관계자,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와 함께 대회를 받아 올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1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아귀·새우 등 FTA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등 신청

전북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종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7개 품목이 선정됐으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한도액은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까지이다. /김진성 기자

## 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재가 | 25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됐다. 뉴스스에 따르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 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

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영배 헌법재판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강석훈 기자

## 국민연금 해외 수탁기관 SSBT, 전주 개설 인가

내달 중 사무소 개소식 되고 있다. SSBT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관리, 투자운용, 리서치, 트레이딩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수탁은행으로 100개국 이상 국가에서 직원 약 4만 명을 두고 있다. 수탁서비스 규모는 33조 달러이며 운용자산 규모는 2조 8,050억 달러이다. SSBT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 8월 중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장소 미정)으로 입주 이전까지의 전북혁신도시 코워킹 스페이스 임시 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수탁기관인 SSBT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이 지난 1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주사무소 개설인가를 받았다고 16일 홍콩 사무소를 통해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SSBT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 지난해 11월 9일 전주사무소 개설 협약체결을 확정하고, 이번 행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협력사 업무 추진을 통해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